‘종단화합 최우선’ … 기호 달라도 애종심은 한마음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4人4色 정견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정책 토론회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이 6월 19일 진행된 제13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기점으로 각각 정견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태고종이 처한 부채 문제 및 출가자 확보 등 현안 해결과 화합 운영에 공통된 입장을 보이면서도, 세부적인 해결책에서는 차별화된 방안을 제시했다. 태고종 중앙선관위는 총무원장 선거인단 확정 후 7월 5일 오후 2시부터 공식 정견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스님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종단 발전을 위해 깨끗한 선거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능해 · 백운 · 지홍 · 대은 스님(기호순)

기호 1번 능해 스님
“종단부채 수익사업으로 해결”

능해 스님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협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능해 스님은 1995년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을 시작으로 교무부장, 총무부장, 교류협력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2011년 문체부 전통사찰심의위원을 지냈다.

스님은 “종단에 봉직하면서 쌓아온 행정실무 경험과 사회활동 경험 등을 종단발전에 회향하겠다”며 특히 태고종 부채를 수익사업으로 해결할 것을 밝혔다. 선암사 분규문제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시도 강원과 불교대학을 재정비하고 정부 인가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능해 스님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단청장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 전승가들을 양성하고, 스님들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호 2번 백운 스님
“권역별 3심체제 완비할 것”

백운 스님은 태고종 위상 강화에 나설 것을 밝혔다. 스님은 1973년 춘천 석왕사 주지로 취임하며 강원지역 포교에 앞장섰다. 춘천소년원과 교도소서 전법활동을 펼쳤으며 1994년부터 강원불교대학장을 맡아 교육에 나서고 있다. 종정예경실장, 강원종무원장, 교육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종단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도들의 원력이 있어야 한다”며 백의종군할 것을 밝혔다. 스님은 종단 부채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마중물로 쏟아 붓겠다”고 역설했다. 또 “감사원법을 도입해 종단 부채에 대한 감시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백운 스님은 출가제도 개편도 제시했다. 스님은 “이판과 사판을 구별해 수계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고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출가자 감소에 대비하겠다”며 “종무행정 체계화를 위해 권역별 지방초심제도를 다시 도입해 3심 체제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3번 지홍 스님
“종단위상 회복 위해 진력”

지홍 스님은 구체적인 공약 대신 입후보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1981년 청련사 재무를 시작으로 2004년 태고종 보우승가회 회장, 2009년 태고종 총무원 행정부원장, 제12~14대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태고종은 어디까지나 한국불교 장자 종단으로 종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추대 형식으로 총무원장 선거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스님은 “큰스님을 추대해서 모시는 것이 맞다. 투표를 하다 보니 분열이 되고 양분되는 일이 생긴다. 추대 형식을 통해 종단 수장을 모셨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스님은 끝으로 “총무원장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없다. 종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기호 4번 대은 스님
“전통 · 문화 · 복지종단 확립”

대은 스님은 원융살림을 바탕으로 한 전통종단, 문화종단, 복지종단을 기치로 내걸었다. 스님은 1989년 인천불교총연합회 16대 회장을 맡은 이후 2006년부터 24대와 25대 회장을 역임했다. 1991년 해동불교대학 교육원장을 맡은 후 대학장으로 현재까지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태고종 종무원장 협의회 1 · 2대 회장과 총무부장, 중앙종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5대 종책 기조를 공개했다. 첫 번째 기조로 “선암사 수호를 중심으로 종지종풍과 전통성을 확립해 나가겠다. 의식 의제의 통일로 전통종단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기조로 종무행정에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책임 종무원제를 도입할 것, 세 번째 기조로 종단 부채해결, 네 번째 기조로 선도적 종도교육과 후학 육성을 제시했다. 특히 종도교육에서는 종립학교 기반 확립과 기성 스님 재교육 실시방안도 공개했다. 스님은 끝으로 문화복지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대은 스님은 “영산재 등 종단이 지닌 문화재를 보완해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기관을 만들어 범패, 팔관회 등 종단의 많은 문화자원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종헌 종법 계승 및 재정립 △종단사 재정립 △종단 전통의제 통일 △총무원 권한의 지방 이양 △삼보정재 관리 위한 행정개선 △사설사암 자주권 보장 △법계 제도 개선 △기본교육 개선 위한 교육원 활성화 △승려노후복지 재정 확보 △포교원 활성화 및 대사회 참여 등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영동대로 개발’ 환경문제 우려 잇달아

환경평가 공청회, GBC 중복오염 가능성… “통합평가해야”

서울시 영동대로 일대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부실 평가라는 지적과 함께 환경문제 우려가 빗발쳐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6월 22일 삼성1동 문화센터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봉은사역사문화환경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현 · 원명) 관계자와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개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대상지역 설정 △지하수위 조사 및 평가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환경 보전을 위한 대상지역을 계획구간과 주변수계로 설정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하수 흐름 방향을 한강이 아닌 탄천으로 제시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면서 “1회 계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하수위 분포를 확인하기 불가능하고, 지점별로 연속계측자료와 강남구 보조관측망 자료 등과의 비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하수위 영향범위와 수위변동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수위저하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 등 주변 영향평가와 저감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공사 시 발생한 문제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적정 차수공법과 시설설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현대차 GBC개발과 연계된 지하수 영향 검토와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예측과 평가가 축소되고 부실하다. 또한 환경영향범위와 평가항목도 누락됐다”고 지적한 뒤 GBC 건립으로 인한 복합오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도 GBC와 영동대로 가중피해를 사전검증하기 위한 통합환경영향평가를 주문했다. 윤호섭 기자

‘해종언론 사태’ 법정공방 예고

2015년 11월 인터넷매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한 조계종과 이를 언론탄압이라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21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불교언론탄압 자행하는 자승 총무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해종언론 지정 이후 600여일 동안 5금(취재 · 출입 · 접속 · 광고 · 접촉금지)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두 언론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불교계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정남기 前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최병모 前민변회장,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허태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해종언론에 내려진 5금 해제 △해종언론 낙인 행위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용주사주지 은처 의혹 · 마곡사 금권선거 · 동국대 사태 등 관련자 징계를 통한 자정기능 회복 등을 조계종 총무원에 촉구하며, 총무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탄압 아냐… 취재거부 권리 있다”
조탄공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계획”

조영선 前민변 사무총장은 “1970년대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일”이라며 “다음 주 중 두 언론사에 대한 조계종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20일 홍보국장 효신 스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나 소송을 통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종단은 취재를 거부할 수 있음 △소속 사찰 이외에 광고 게재를 방해하지 않음 △다수 교계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함 등의 이유를 들어 언론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해당 매체가 국정원 결탁 및 정보거래 의혹과 지속적인 편파 왜곡 보도로 종단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승가를 비방하는 등의 유언비어를 양산하는 댓글을 방치하는 등 불교계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해 이뤄진 문제”라며 “근래에는 종단 수장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등 언론을 넘어 정치 단체화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종단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종단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및 편파 보도에 대해 최소한의 대응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그 대응이 해종언론 지정을 통한 취재 및 출입제한과 광고게재 거부로 자구적인 방안일 뿐”이라고 탄압 논란에 선을 그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포교대상 공모

7월 28일까지, 시상식 10월

조계종이 포교 일선에서 헌신한 스님과 재가불자를 치하하는 포교대상을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28일까지 전법포교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사찰 단체 후보자를 추천 받아 오는 10월 경 시상할 계획임을 6월 22일 공고했다.

포교대상은 종정상인 대상을 비롯해 총무원장상인 공로상, 포교원장상인 원력상 등으로 나눠 시상한다. 추천대상은 유아 및 어린이청소년, 대학생 등 계층포교 분야와 군 · 경찰 · 직장 등 직능포교, 미술 · 성보 · 건축 · 음악 · 학술 · 연예 등 문화체육포교분야, 환경 · 통일 · 장애인 · 복지 · 여성 등 사회포교, 방송 · 언론 · 출판 인쇄 등 매체포교, 신도교육 및 조직운영 등 지역포교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스님 또는 재가불자다.

후보자 공모는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 및 종단 소속 포교 · 신도단체 대표 추천을 받아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서 양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사)한국불교조계종 종단 통일가사 점안법회 봉행

한국불교조계종은 미래불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종단개혁과 혁신으로 불교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한국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정법수행을 일으켜 세우고 법계일탈이 만연하여 해체된 승가공동체 구현과 대중공의와 종도주권의 실현을 위해 종단의 체질을 최근 새롭게 바꾸고 종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종도들이 다함께 원융회통을 통해 종단 법인설립 이래 최초로 전통 점안의례 통일가사 점안을 봉행하여 한국불교조계종의 승려 의제를 통일하고 법계제도를 새롭게정착 조계종 정체성 확립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전법의 혁신과 종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종단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분열과 갈등과 반목을 청산하고 소외된 종도가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창의적인 종무행정을 공평무사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조계종은 종도들이 환골탈퇴하는 개혁을 통해 기계를 닮아가는 메마른 사회의 풍토에 깨달음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는 종풍쇄신 운동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제방의 대덕큰스님과 전국에 계신 종도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 7월 1일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법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FAX : 02)720-8271 H.P : 010-5432-0108(총무원장 운산), 010-4167-3666(사무총장 도광)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